
 <b>교육부</b>		<h1>보도자료</h1> <p>2021. 7. 23.(금) 배포</p>		 대한민국 대전환 <b>한국판뉴딜</b>	
보도일	<b>2021. 7. 26.(월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</b> <b>인터넷·방송·통신 7. 25.(일) 09:00 이후 보도 가능</b>				
담당과	체육예술교육지원팀	담당자	과장 최윤정 (☎ 044-203-6635)	교육연구관 김대진 (☎ 044-203-6641)	교육연구사 이진수 (☎ 044-203-6330)

## 학생선수 보호를 위한 폭력피해 전수조사 실시

- ◆ 전체 초·중·고 학생선수 6만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 추진
- ◆ 폭력문화 근절을 위해 조사 정례화 및 가해자에 대해 엄정 조치

- 교육부(부총리 겸 교육장관 유은혜)는 17개 시도교육청과 함께 7월 26일(월)부터 5주간(2021.7.26.~8.27.), 초·중·고에 재학 중인 학생선수 6만여 명을 대상으로 폭력피해 전수조사를 실시한다.
  - 폭력피해 전수조사는 작년에 체육계의 폭력 사안 발생에 따라 최초 실시되었고, 2020년 12월 발표한 ‘학생선수 인권보호 강화 방안’에 따라 정례화가 되었으며,
  - 피해사례를 지속해서 파악하고 그에 따른 엄정한 후속조치를 통해 학생선수의 인권을 보호하는 데 목적이 있다.
  - 한편, 학생선수·학부모 등은 교육부 폭력피해 신고센터\*를 통해서 언제나 학교운동부 관련 폭력피해를 신고할 수 있다.

\* 교육부 누리집→국민참여·민원→신고·제안·고충처리→폭력피해 신고센터

- 폭력피해 전수조사 대상에는 학교운동부 소속 학생선수뿐만 아니라, 선수 등록을 하고 개별적으로 활동하는 학생선수까지 포함되며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.

- 코로나19 방역 상황에 대응하고 학생들이 자유롭게 편안하게 응답할 수 있도록 온라인으로 실시하며,
  - 작년 여름방학 이후부터 현재 조사시점까지 1년간의 폭력 피해 사례를 대상으로 한다.
  - 또한, 외부 영향력을 최소화하기 위해 학교운동부 관계자를 조사과정에서 배제하며, 적극적인 조사 참여 및 응답을 유도하기 위해 학생·학부모에게 조사의 배경 및 필요성 등을 사전 안내할 예정이다.
  - 한편, 지속적·반복적 폭력이 이루어졌거나, 조직적 은폐·축소가 의심되는 사안일 경우,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의 합동 특별조사도 함께 추진될 예정이다.
- 아울러, 전수조사 실태파악 후 가해자에 대해서는 관련 절차에 따라 엄정한 후속조치가 이어지게 된다.
- 가해 학생선수의 경우, 학교폭력 사안 처리 절차에 따라 학교장 자체해결, 교육청지원청 심의위원회 심의·의결 등에 따른 조치가 이뤄지며,
  - 가해 지도자의 경우에는 아동학대 신고에 따른 경찰 수사와 신분상 징계 및 체육지도자 자격에 대한 징계가 이루어진다.
-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“폭력피해 전수조사 정례화를 통해 지속해서 폭력 사례를 파악하고 엄중히 대응함으로써, 체육계의 폭력을 근절하고 학생선수에 대한 보호를 강화해 나가겠다.”라고 밝혔다.

